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보고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일반국민 3,000명, 전문가 50명 대상 인식조사 수행(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

- (주관적 행복감) 평균 6.2점(10점척도)으로 나타남. 삶의 만족도 6.5점보다 다소 낮음.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거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함.
 - 행복감이 낮은 원인에 한 전문가의 진단은 경쟁적 구조, 불평등(양극화), 사회경제적 박탈감, 취약한 사회안전망, 미래 불안 등임
- (삶의 만족도)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균은 6.5점이었음. 만족도를 불만족(0-3), 보통(4-6), 만족(7-10)으로 구분하면, 만족 비율이 55.7%, 보통 40.2% 순으로 나타남. 국민들은 절반 이상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경쟁구조, 비교성향, 코로나19 영향,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 미래 불안 등임
- (고립감) 고립감의 평균 점수는 4.4점이었음. 고립감을 ‘고립되지 않음’(0-3), ‘보통’(4-6), ‘고립됨’(7-10)으로 분류하면 응답자의 40.2%가 고립되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고립된 느낌을 갖는 응답자도 29.4%에 달함.
 - 고립감이 높은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1인 가구 증가(핵가족화), 도시화(공동체 약화), 사회적 불신, 불평등, 사회적 배제, 경쟁심화, 코로나19(비대면 관계), 사회참여 기회 부족 등임
- (사회적 지원망)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7.4%, 15.5%, 5.9%로 나타남

- 보건복지상담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 인지율은 각각 24.8%, 34.1%이며, 이용경험은 각각 12.1%와 36.5%이고, 도움이 된 정도는 각각 82.2%와 81.5%임
-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62.0%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함
 -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도권 이외 광역시 주민일수록, 가구원수가 3명 이상일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
- **(지난 5년간 생활수준 변화)** 큰 변화가 없다(67.4%), (매우)나빠졌다(22.3%)*
 - * 60대 이상(25.3%), 수도권(26.6%), 월세 및 기타(30.2%), 실업자(52.3%)와 고용주·자영자(37.8%) 등의 경우와 가구소득이 100-200만원대의 가구(30% 정도)에서 지난 5년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나빠진 생활수준에서 '21년, '22년의 생활수준은 긍정과 보통의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
-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식료품비(63.5%)를 꼽았으며, 주거비 13.5%, 교육비 10.8% 순으로 응답
 - 연령별로 보면, 식료품비 이외 2순위로 20, 30대의 경우 주거비를, 40, 50대의 경우 교육비, 60대 이상의 경우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항목에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임.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일반국민의 12.8% 정도가 원리금 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
 - 30, 40대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 (신뢰)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대인(일반적 신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대인신뢰 평균 6.2점, 중앙정부 신뢰가 평균 5.7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평균 6.0점으로 나타남
 -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서의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에 해당하는 기타 도의 군의 경우 신뢰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기타 도의 군지역의 신뢰에 대한 평균점수는 대인신뢰는 5.5점, 중앙정부 신뢰는 4.0점, 지방자치단체 신뢰는 5.1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전반에 관련된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배려와 포용 정도, 사회의 활력성, 경제/미래의 희망 정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평균 점수(10점 척도)는 5.9점, 6.0점, 5.8점, 5.9점으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지역별로는 기타 도의 군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재산 분배) 현재 보다 미래(5년후)에 대한 분배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데, 5점 척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 그 이유는 '매우 불평 등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미래 시점일수록 그 응답비율이 높아지지만 '평 등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5년후 시점이 가장 높기 때문임
 - * 5점 척도로, (소득 및 재산) 현재 2.9점 → 5년후 3.0점, (소득) 현재 2.9점 → 5년후 3.0점, (재산) 현재 2.8점 → 5년후 2.9점
-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 7가지 세부 문항들 모두 50% 이상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을 조심한다'의 긍정비율이 가장 높고,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칠 것이다'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느낀다'의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공동체의 지리적(물리적) 범위에 대해서 읍면동(29.9%), 시군(29.5%), 광역 시도(21.4%), 마을(아파트)(19.2%)의 순으로 응답함

-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공동체를 이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설문에서 행정구역 단위가 작을수록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 최소단위인 마을(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

- **(공동체로 인식하는 지역범위에 대한 인식)** 공동체로 인식하는 지역범위로부터 얻는 효용을 주민들의 욕구 충족, 혜택 받고 있는지, 자부심 느끼는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욕구를 충족한다는 긍정비율은 50%,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41.8%, 자부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45.9%로 나타남

□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 **(복지국가 인식)** 국민의 절반은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인식(53.6%)
* 남성(52.0%)에 비해 여성(55.1%)이 높았으며, 만 65세(58.8%), 자가(57.2%)가 높았음
- **(사회보장 수준)** 높다('21년 32.4% → '22년 32.0%)는 비슷한 수준, 낮다('21년 21.9% → '22년 17.8%)로 낮아짐. 5년 후에는 긍정적으로 변화('21년 42.7% → '22년 44.0%)
-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21년 70.2% → '22년 61.6%) 감소
 - 확대에 긍정적 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필요성(26.2%), 노후 소득 불확실성(25.5%), 취약계층이 많아서(24.8%)의 순이었음
 - 확대에 부정적 견해는 미래세대 부담 증가(34.1%), 사회보자제도가 충분(29.5%)의 순이었음
 - 사회보장 확대 공부정 모두 미래세대에 대한 생각 의견이 주류
 - 보장확대를 위한 세금·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의견 높음(65.2%)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52.4%(우리 사회 전반), 53.1%(가구 경제상황)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의 필요성 정도가 부유층에 비해 낮고,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하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지급방식)**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38.6%),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28.8%),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18.9%), '피해 여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13.7%)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스트레스 증가'(52.6%)이며, 다음으로는 '소득 감소'(39.9%), '(취업, 사업 등)생업의 어려움 증가'(39.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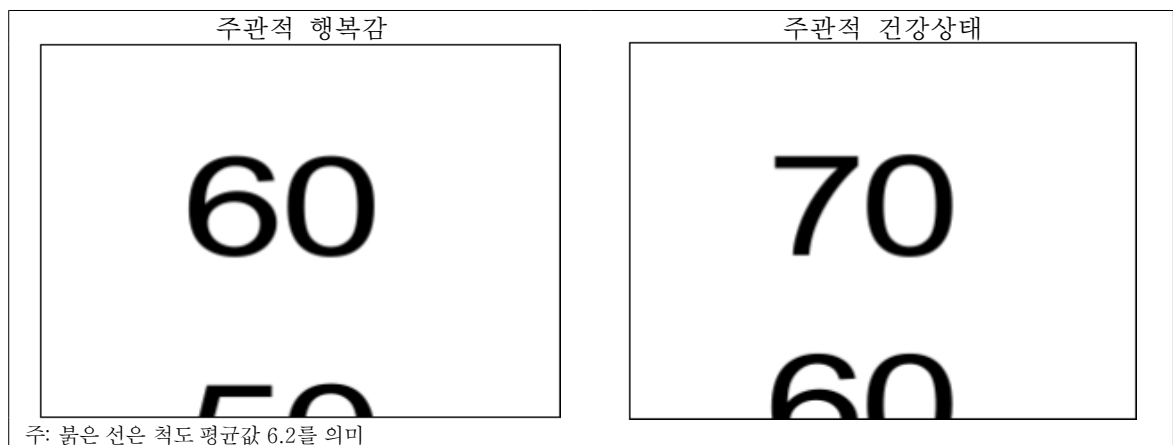
붙임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요약]

- (조사목적)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일반국민 3,000명(대면조사), 전문가 50명(웹조사)
* 남(1,514명), 여(1,486명) / 20대(523명), 30대(491명), 40대(603명), 50대(646명), 60대 이상(737명)
- (조사기간) '22.10월~11월(2개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
- (조사내용) 사회보장 분야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및 전문가 의견 등

1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

① 주관적 행복감¹⁾,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행복감) 평균 6.2점(10점 척도)으로 나타남. 삶의 만족도 6.5점보다 다소 낮음.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거주자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안정된 자가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 삶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임시일용직, 실업자,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고(0-4) 인식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 자원 부족이 40.3%로 가장 높

1) 전반적 행복 수준을 10단계(최악의 상태 0점에서 최선의 상태 10점)로 측정하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았음. 내 집 마련 어려움(17.9%)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자원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함. 다음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일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함

-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략적인 키워드로 살펴보면, 경쟁적 구조, 불평등(양극화), 사회경제적 박탈감, 취약한 사회안전망, 미래 불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62.0%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함.

-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도권 이외 광역시 주민일수록, 가구원수가 3명 이상일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함.
-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일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음. 객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빈곤층의 긍정적 인식은 36.6%인 반면, 중상층은 67.4%로 큰 격차를 보임. 이는 저소득층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②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균은 6.5점이었음. 만족도를 불만족(0-3), 보통(4-6), 만족(7-10)으로 구분하면, 만족 55.7%, 보통 40.2%, 불만족 4.0%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만족도가 높지 않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보통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40.2%)을 차지하기 때문임.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1인 가구, 중졸 이하, 월세 거주, 200만원 이하, 빈곤층/중하층, 임시일용직/실업자의 특성을 지님.

○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를 1)생활수준, 2)신체건강, 3)정신건강, 4)사회 전반적인 안전, 5)주거생활, 6)직업 등 6가지 세부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6.6점으로 앞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수준과 양상을 보였음. 만족 비율은 59.2%로 나타남.
-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7.0로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보다 다소 높았음. 신체건강에 만족하는 비율은 70.6%로 나타남.
- ‘정신건강’ 만족도는 7.1로 신체건강 만족도(7.0)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임. 정신건강에 만족하는 비율은 71.6%로 나타남.
-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6.9점이었음. 만족하는 비율은 69.3%로 나타남.
- ‘주거생활’ 만족도는 6.7점이었음. 만족하는 비율은 64.0%로 나타남.
- ‘직업’ 만족도는 6.5점이었음. 만족 비율은 57.4%로 나타남.

【영역별 삶의 만족도 점수(점)】		【영역별 삶의 만족도 분포(%)】			
		구분	불만족 (0-3)	보통 (4-6)	만족 (7-10)
	삶의 만족도	4.0	40.2	55.7	
	생활수준	2.8	38.0	59.2	
	신체건강	3.0	26.3	70.6	
	정신건강	2.3	26.0	71.6	
	안전	1.8	28.9	69.3	
	주거생활	2.8	33.2	64.0	
	직업	4.1	38.5	57.4	

○ 삶의 만족도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쟁구조, 비교성향, 코로나19 영향,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 미래 불안 등임.

③ 고립감, 사회적 지원망

○ (고립감) 고립감의 평균 점수는 4.4점이었음. 고립감을 ‘고립되지 않음’(0-3), ‘보통’(4-6), ‘고립됨’(7-10)으로 분류하면 응답자의 40.2%가 고립되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고립된 느낌을 갖는 응답자도 29.4%에 달함.

-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교류에 제약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고

립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1인 가구, 비혼인구의 증가,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 등 개인화와 경제적 양극화 경향 및 사회적 계층상승 가능성의 저하 등도 응답자의 고립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의 진단은 1인 가구 증가(핵가족화), 도시화(공동체 약화), 사회적 불신, 불평등, 사회적 배제, 경쟁심화, 코로나19(비대면 관계), 사회참여 기회 부족 등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됨

고립되지 않음 (0-3)	보통 (4-6)	고립됨 (7-10)	척도평균
40.2	30.4	29.4	4.4

- **(사회적 지원망)** 응답자의 사회적 지원망의 특성을 1)몸이 아파서 집안일 부탁, 2)급전이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대상, 3)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별로 ‘가족 및 친지’, ‘친구 및 동료’, ‘공공 및 민간 지원기관’, ‘없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몸이 아파서 집안일 부탁’하는 경우는 가족 및 친지가 85.0%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집안일 부탁은 매우 사적인 부탁이기 때문임. 가족 및 친지가 아닌 친구와 동료에게 부탁하는 비율은 35.1%정도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7.4%였음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및 동료’가 34.5%를 차지하였음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에도 ‘가족 및 친지’가 67.5%로 가장 높았음. ‘친구 및 동료’도 59.8%를 차지하였음. 친구와 동료는 이야기 상대로서 응답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임

구분	가족 및 친지	친구 및 동료	공공 및 민간 지원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없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5	35.1	5.2	7.4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74	34.5	4.8	15.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67.5	59.8	3.7	5.9

-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1)인지여부, 2)이용여부, 3) 도움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에 그침
 - 하지만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자들의 82.2%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집단 별로는 수도권/군지역, 고졸 이상 집단에서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함
 -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성과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자 참여를 증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1)인지여부, 2)이용여부, 3) 도움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보건복지콜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보건복지상담센터(24.8%)에 비해 다소 높은 인지 비율을 보임. 보건복지콜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역시 보건복지상담센터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접근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추측
 - 보건복지콜센터 도움정도는 81.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집단 별로는 월세 및 기타,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실제 소득 기준 빈곤층은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콜센터보다 상담센터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담 및 서

비스의 밀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구분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		
	알고 있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도움안됨 (1-2)	보통 (3)	도움됨 (4-5)
보건복지상담센터	24.8	75.2	12.1	87.9	4.4	13.3	82.2
보건복지 콜센터	34.1	65.9	36.5	63.5	2.4	16.1	81.5

○ **(고립감과 공적지원체제 - 보건복지상담센터)** 고립감의 수준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을 1)인지여부, 2)이용여부, 3)도움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실제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고립감이 높은 집단이 과연 얼마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봄

- 고립감 정도에 따른 인지여부는 큰 차이는 없지만 고립감이 낮은 집단의 인지도(26.6%)가 고립감이 높은 집단(2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이용경험의 경우, 고립감이 상위/중위인 집단의 이용경험이 고립감 하위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고립감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실제 이용경험 비율은 더 높음

- 고립감 수준에 따른 도움정도의 차이는 없었음. 고립감 정도와 무관하게 문제해결 도움에 대해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임. 고립감 중간 집단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5.7%로 가장 높음.

○ **(고립감과 공적지원체제 - 콜센터)**

- 고립감 정도에 따른 인지여부는 고립감이 높은 집단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립감 정도에 따른 이용경험은 고립감 정도와 관련이 없음. 대체로 36-38% 정도를 보임.
- 고립감 정도에 따른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은 고립감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남.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인식은 고립감 하위집단의 경우 90.7%인 반면, 고립감 상위집단은 68.7%로 나타남. 고립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콜센터의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실제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음

고립감 정도 구분			고립되지 않음 (0-3)	보통 (4-6)	고립됨 (7-10)
보건복지상담 센터	인지여부	알고 있다	24.6	22.8	26.6
		모른다	75.4	77.2	73.4
	이용경험	있다	14.3	16.8	7.5
		없다	85.7	83.2	92.5
	도움정도	도움 안됨	6.5	2.9	4.2
		보통	16.1	11.4	12.5
		도움됨	77.4	85.7	83.3
콜센터	인지여부	알고 있다	41.3	26.5	34.4
		모른다	58.7	73.5	65.6
	이용경험	있다	35.9	37.6	36.4
		없다	64.1	62.4	63.6
	도움정도	도움 안됨	1.5	5.5	1.3
		보통	29.8	9.9	7.9
		도움됨	68.7	84.6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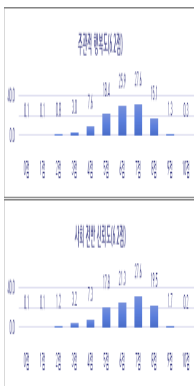
<주관적 인식 관련 참고>

○ (주요 주관적 인식의 분포)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고립감의 척도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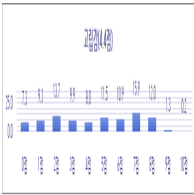
- 10점 척도 점수로는 삶의 만족도(6.5점), 주관적 행복도(6.2), 사회전반 신뢰도(6.2점), 非고립감(5.6점)의 순임.

* 고립감은 4.4점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非고립감)을 5.6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행복도, 만족도, 신뢰도는 중위 척도(5점)를 중심으로 볼 때 좌측에 분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반면, 고립감의 경우는 중위 척도(5점)를 중심으로 볼 때 6~8점에 분포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특징이 있음. 즉, 행복도, 만족도, 신뢰도의 경우는 중상 하위점수 분포가 극히 적는데 반해, 고립감은 극단치를 제외한 하위점수 분포도 비교적 큼.



○ (주관적 인식의 중첩성) 행복, 삶의 만족도, 고립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인식의



중복 정도를 살펴보면,

- 행복, 삶의 만족도, 非고립감, 신뢰도 모두에서 부정적 인식(0~4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0.1%, 3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0.7%로 각각 나타나고, 행복과 삶의 만족도 둘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4%로 나타남.
 -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고립감과 신뢰도 문항과의 중복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 정도가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주관적 인식 지표들을 동시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지표들이 상호 배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이들 지표들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는 적지만,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단위: 명, %)

주관적 인식	4개	3개	2개	1개	0개	합계
행복+삶의만족도+고립감+신뢰도	3	20	87	1,015	1,875	3,000
행복+삶의만족도	—	—	42	156	2,802	3,000
행복+고립감+신뢰도	—	4	55	1,018	1,923	3,000
삶의만족도+고립감+신뢰도	—	4	62	1,006	1,928	3,000
주관적 인식	4개	3개	2개	1개	0개	합계
행복+삶의만족도+고립감+신뢰도	0.1	0.7	2.9	33.8	62.5	100.0
행복+삶의만족도	—	—	1.4	5.2	93.4	100.0
행복+고립감+신뢰도	—	0.1	1.8	33.9	64.1	100.0
삶의만족도+고립감+신뢰도	—	0.1	2.1	33.5	64.3	100.0

○ (주관적 인식과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 삶의 만족도, 고립감, 신뢰도에서 부정적 인식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나타남

- 부정적 인식의 중첩성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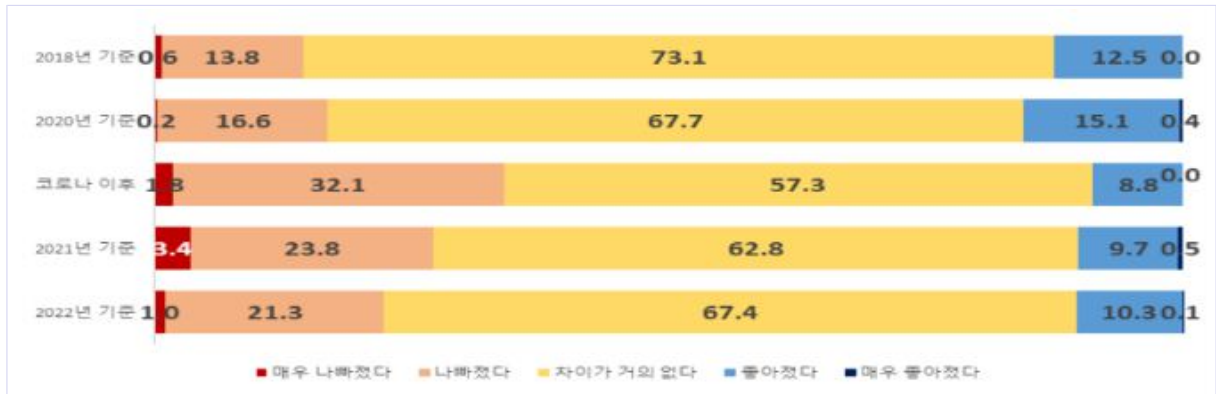
* 다만, 이들 응답자의 수가 23명으로 특성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단위: %)

주관적 건강상태 부정적 인식 중복수	(매우) 나쁘다	보통	(매우) 좋다	합계
3~4개	47.8	34.8	17.4	100.0
2~1개	5.6	33.4	61.0	100.0
0개	5.4	31.4	63.2	100.0

③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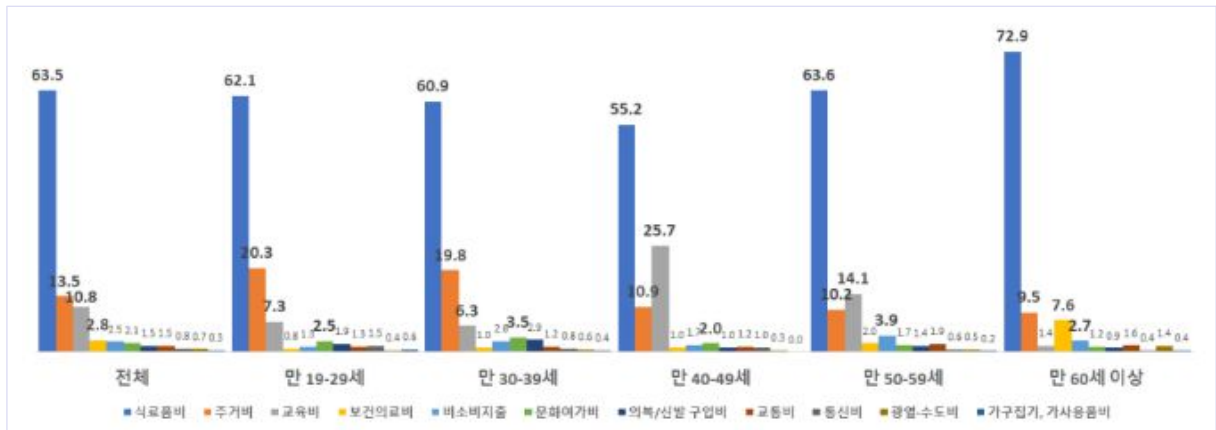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생활수준 변화) 큰 변화가 없다(67.4%), (매우)나빠졌다(22.3%)*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나빠진 생활수준에서 '21년, '22년의 생활수준은 긍정과 보통의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



* 60대 이상(25.3%), 수도권(26.6%), 월세 및 기타(30.2%), 실업자(52.3%)와 고용주·자영자(37.8%) 등의 경우와 가구소득이 100-200만원대의 가구(30% 정도)에서 지난 5년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식료품비(63.5%)를 꼽았으며, 주거비 13.5%, 교육비 10.8% 순으로 응답

- 생활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 20, 30대의 경우 주거비를, 40, 50대의 경우 교육비, 60대 이상의 경우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항목에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임.



○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총생활비 중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20, 30대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40, 50대의 경우 식료품비와 교육비에 대해, 60세 이상의 경우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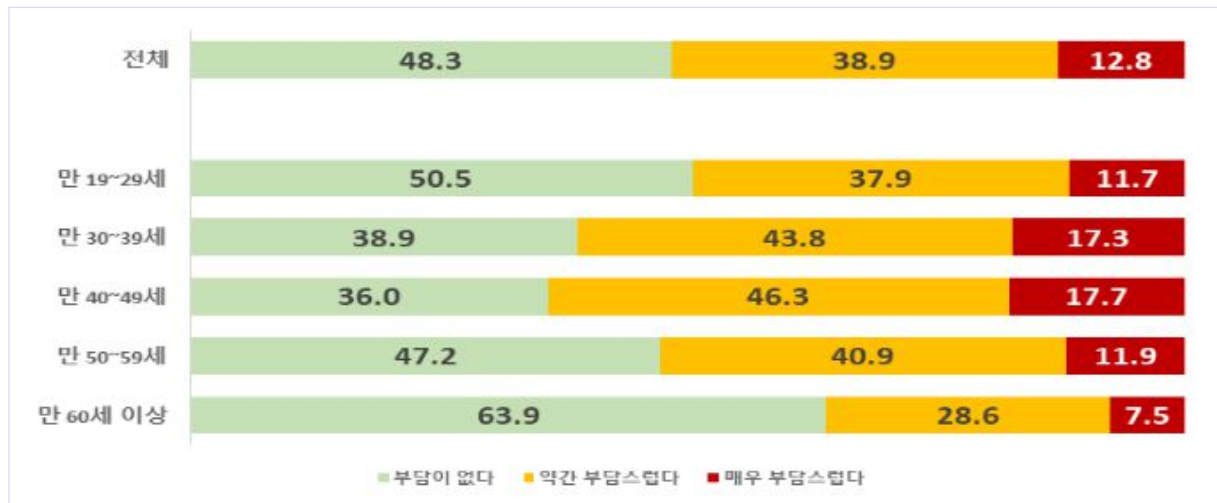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 이상
식료품비	50.3	54.4	44.6	55.0	64.7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등)	26.0	22.2	11.1	11.0	9.2
보건의료비	0.6	0.6	1.0	2.3	11.5
교육비	7.1	7.5	32.8	16.6	1.4
의복/신발 구입비	4.0	3.7	1.7	1.7	1.4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1.0	0.2	0.5	0.9	1.0
통신비	1.9	1.6	0.7	1.6	1.1
교통비	1.2	1.4	1.5	2.0	1.6
문화여가비	4.4	4.9	2.3	3.3	1.6
광열·수도비	0.8	0.6	1.3	1.1	2.2
비소비지출	2.9	2.9	2.5	4.6	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사회보장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일반국민의 12.8% 정도가 원리금 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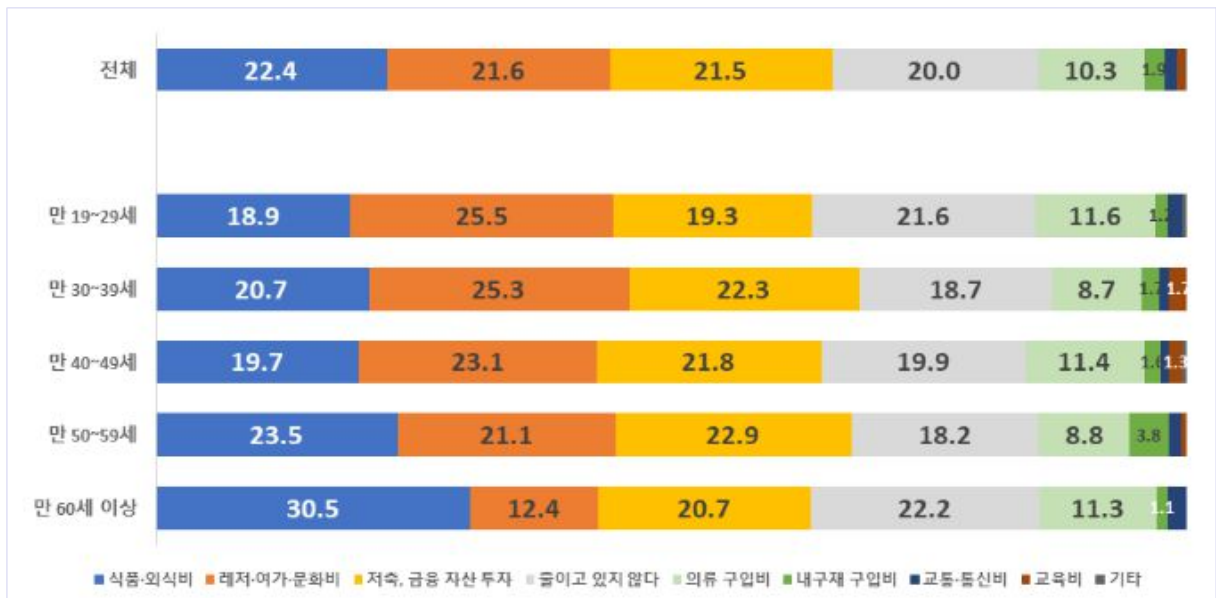
- 30, 40대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가 보다는 전세 및 월세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17.2%가 원리금 상환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고용주 및 자영자, 실업자 집단에서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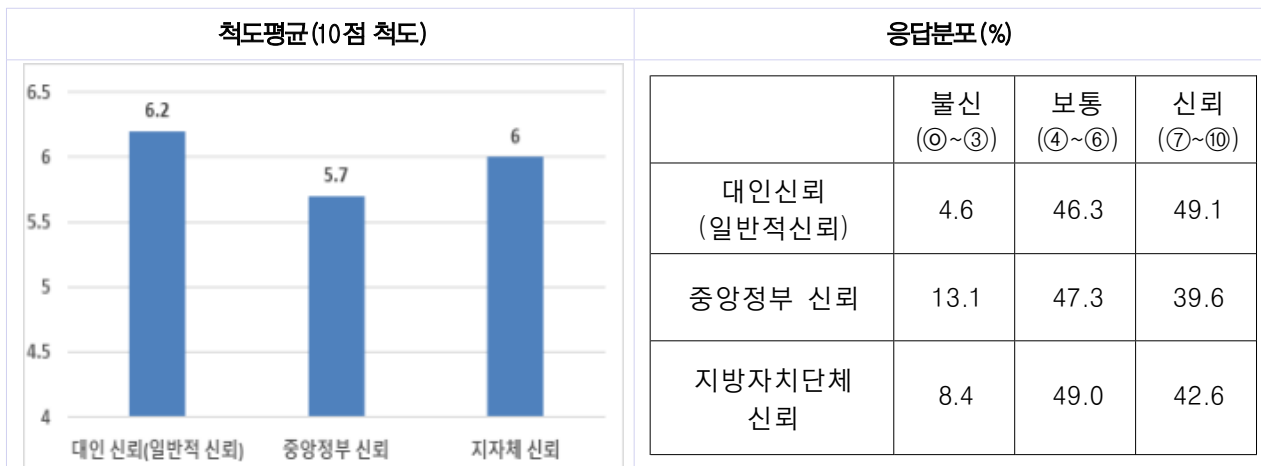
-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으로 저축 혹은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 식품·외식비(22.4%), 레저·여가·문화비(21.6%), 저축, 금융자산 투자(21.5%) 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으로 50대 이상에서는 식품·외식비를, 20~40대에서는 레저·여가·문화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식품·외식비 관련 지출을, 소득이 높은 구간의 경우 레저·여가·문화비, 저축, 금융자산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원리금 상환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사회에 대한 인식

① 신뢰감

- (신뢰)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대인(일반적 신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대인신뢰 평균 6.2점, 중앙정부 신뢰가 평균 5.7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평균 6.0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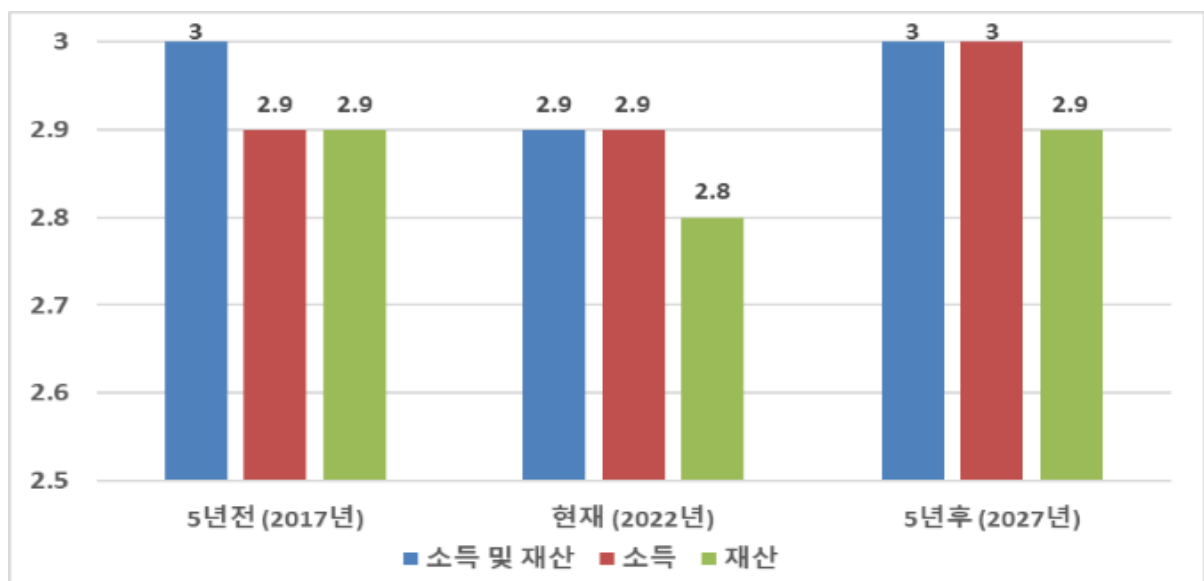


-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서의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에 해당하는 기타 도의 군의 경우 신뢰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기타 도의 군지역의 신뢰에 대한 평균점수는 대인신뢰는 5.5점, 중앙정부 신뢰는 4.0점, 지방자치단체 신뢰는 5.1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일반적신뢰)에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중앙정부는 불신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타 도의 군 지역으로, 응답자의 42.6%가 불신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은 응답 비율임(수도권에서 '불신'으로 응답한 비율은 9%임)
-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전반에 관려된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배려와 포용 정도, 사회의 활력성, 경제/미래의 희망 정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평균 점수(10점 척도)는 5.9점, 6.0점, 5.8점, 5.9점으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기타 도의 군지역에서는 부적정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재산 분배)** 현재 보다 미래(5년후)에 대한 분배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데, 5점 척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그 이유는 '매우 불평등 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미래 시점일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지만, '평등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5년후가 가장 높음

	매우 불평등하다			평등하다		
	소득 및 재산	소득	재산	소득 및 재산	소득	재산
5년전 (2017년)	2.2	3.1	3.4	24.8	21.8	20.3
현재 (2022년)	4.0	4.5	4.6	23.0	21.4	20.3
5년후 (2027년)	5.7	6.5	6.5	30.7	30.7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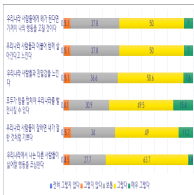
* (5점 척도) 소득 및 재산 : 5년전 3.0점 → 현재 2.9점 → 5년후 3.0점
 소득 : 5년전 2.9점 → 현재 2.9점 → 5년후 3.0점 / 재산 : 5년전 2.9점 → 현재 2.8점 → 5년후 2.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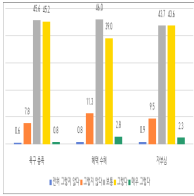
② 공동체

-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 7가지 세부 문항들 모두 50% 이상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을 조심한다'의 긍정비율이 가장 높고,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칠 것이다'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느낀다'의 긍정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로 연령대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다고 느낀다'에 대해서 긍정(그렇다, 매우그렇다)의 비율은 청년(19~34세)(55.7%)이 다른 연령대(35~49세 57.4%, 50~64세 57.5%, 노인(65세 이상) 57.0%)보다 다소 낮은 수준.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청년(58.3%)이 노인(61.0%) 다음으로 높은 긍정 인식을 보임



-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공동체의 지리적(물리적) 범위에 대해서 읍면동(29.9%), 시군(29.5%), 광역시도(21.4%), 마을(아파트)(19.2%)의 순으로 응답함
 -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공동체를 이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설문에서 행정구역 단위가 작을수록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 최소단위인 마을(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동까지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 읍면동까지 공동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노인(34.4%), 중장년(30.4%, 29.8%), 청년(27.4%),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32.2%), 중하층(32.8%), 중상층(29.4%), 부유층(26.0%)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 마을 단위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소득수준별 주거지역의 분화 경향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음
- **(공동체로 인식하는 지역범위에 대한 인식)** 공동체로 인식하는 지역범위로부터 얻는 효용을 주민들의 욕구 충족, 혜택 받고 있는지, 자부심 느끼는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 욕구를 충족한다는 긍정비율은 50%,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41.8%, 자부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4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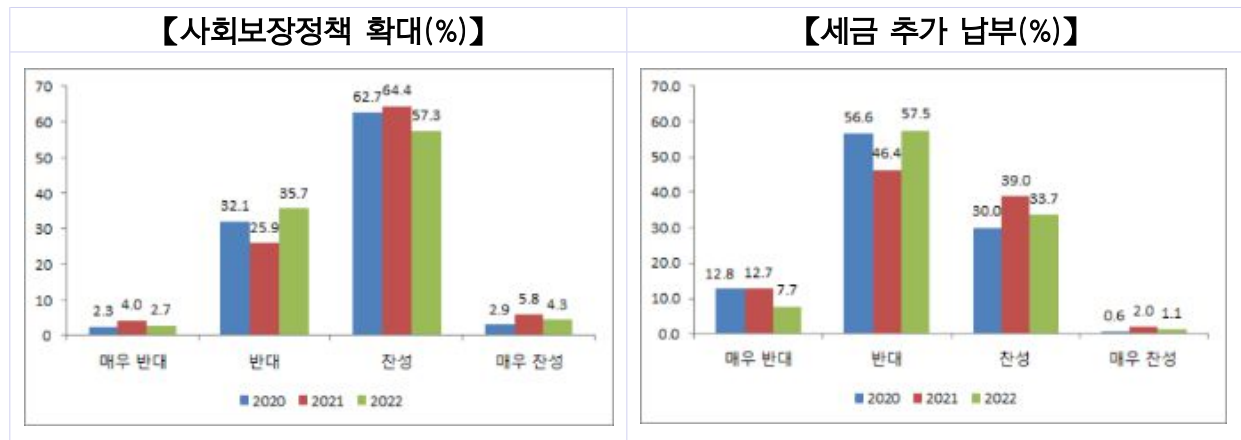


3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① 복지국가 인식

- (복지국가 인식) 국민의 절반은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인식(53.6%)
 - * 남성(52.0%)에 비해 여성(55.1%)이 높았으며, 만 65세(58.8%), 자가(57.2%)가 높았음
- (사회보장 수준) 높다('21년 32.4% → '22년 32.0%)는 비슷한 수준, 낮다('21년 21.9% → '22년 17.8%)로 낮아짐. 5년 후에는 긍정적으로 변화('21년 42.7% → '22년 44.0%)
 - * (연도별 수준, 5점 척도) ('20년) 3.12점 → ('21년) 3.09점 → ('22년) 3.13점
 - * 낮다는 견해는 여자(15.9%)에 비해 남자(19.6%)가 높았으며, 연령으로는 19-34세(19.3%), 지역은 기타도의 군(30.9%)이 높았음.
-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21년 70.2% → '22년 61.6%) 감소
 - * (연도별 확대, 4점 척도) ('20년) 2.66점 → ('21년) 2.72점 → ('22년) 2.63점
 - * 청년(19-34세)(62.2%), 기타 도의 군(76.6%), 중위소득 150% 초과(67.9%)에서 찬성이 높고, 인천제외 광역시(44.2%), 1인 가구(40.8%), 실업자(42.0%)에서 반대가 높음
 - 확대에 긍정적 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필요성(26.2%), 노후 소득 불확실성(25.5%), 취약계층이 많아서(24.8%)의 순이었음
 - 확대에 부정적 견해는 미래세대 부담 증가(34.1%), 사회보장제도가 충분(29.5%)의 순이었음
 - 사회보장 확대 공부정 모두 미래세대에 대한 생각 의견이 주류
 - 보장확대를 위한 세금·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의견 높음(65.2%)
- 세금(세금, 보험료 등) 추가 납부에 대하여 찬성 의견('21년 41.0% → '22년 34.8%)로 감소, 반대 의견('21년 59.1% → '22년 65.2%)로 증가
 - * (연도별 추가 부담, 4점 척도) ('20년) 2.18점 → ('21년) 2.31점 → ('22년) 2.28점
 - * 만 19-34세 이하(67.1%), 인천제외 광역시(71.6%), 기타 도의 시(73.3%), 실업자(73.9%),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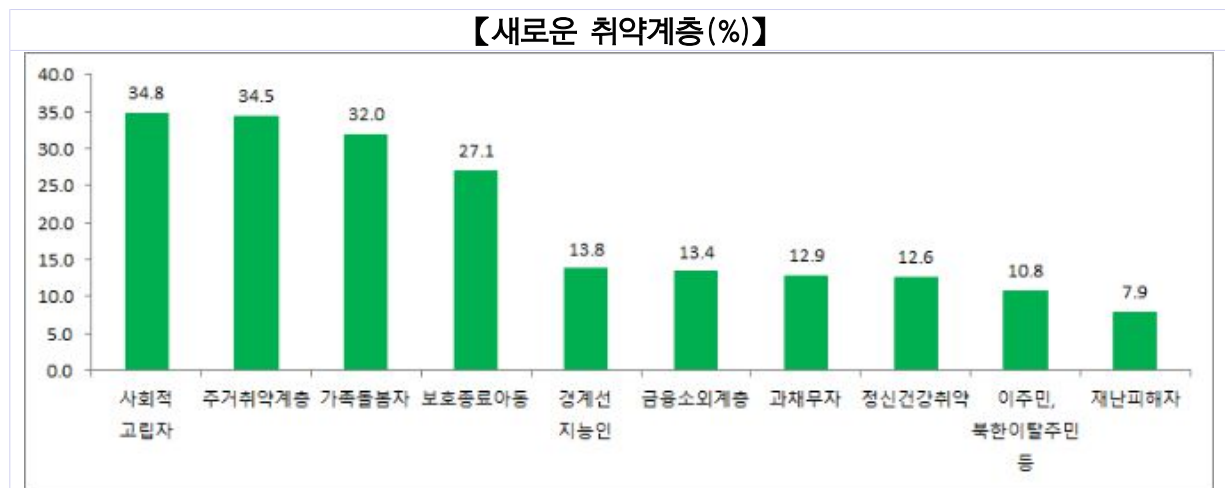
위소득 50% 이하(72.7%)에서 높은 반대를 보였으며, 수도권(40.5%), 기타도의 군 (50.0%), 중위소득 150% 초과(44.3%)에서 높은 찬성



○ **(새로운 취약계층)**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우선 고려할 대상으로

-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자(은둔·고립청년, 1인 가구)(34.8%), 주거 취약계층(34.5%), 가족돌봄자(일명 영케어러)(32.0%) 등의 순(중복 응답)

* 이외에 보호종료아동(27.1%), 경계선 지능인(13.8%), 금융소외계층(13.4%) 등이었음



○ **(국가의 역할 인식)** 14개 분야 질의에 대해 국민의 긍정인식 비율이 높음

- 국가 역할 인식중 부정의견이 높은 항목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32.2%), “집 걱정 없이 주거생활을 누리는 사회”(28.3%)의 순으로 나타남
- 부정 의견이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지원

하는 사회”(13.2%),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13.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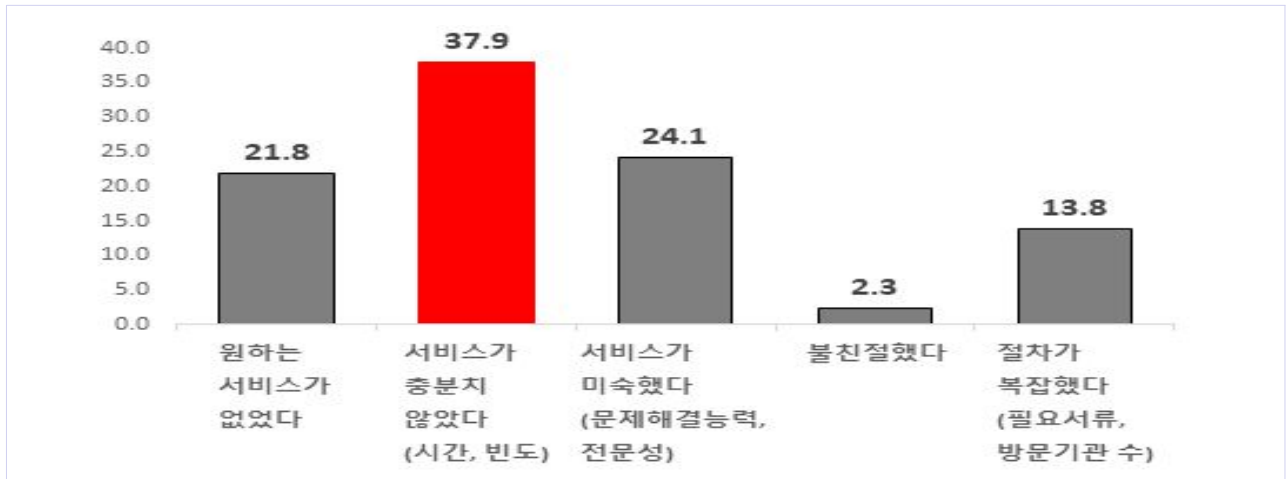
【국가 역할 국민인식(%)】			
구분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13.2	42.3	44.6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14.6	40.1	45.4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충분한 사회	25.0	40.5	34.4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13.8	41.7	44.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없는 사회	20.8	44.5	34.7
집 걱정 없이 주거생활을 누리는 사회	28.3	42.4	29.2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21.6	46.3	32.2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14.5	43.6	41.9
범죄, 학대 등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19.2	43.9	36.9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걱정 없는 사회	24.0	44.7	31.3
정체성(성,연령,장애 등)에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20.3	45.3	34.4
노인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	15.0	42.9	42.1
실업자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	23.4	46.6	30.0
걱정없이 이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32.2	44.8	23.0

② 영역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 (실업) 실업을 겪은 대상자의 18.0%가 어려움을 느끼고, 21.1%가 도움을 필요로 함

* 수도권(22.6%), 1인 가구(20.5%), 월세(22.4%)에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도움 요청 경험)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의 32.9%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
- (도움 불만족 평가 이유) 서비스 시간과 빈도가 충분하지 않다(37.9%)가 가장 높고, 문제해결능력·전문성 등의 서비스 미숙(24.1%), 원하는 서비스가 없음(24.1%)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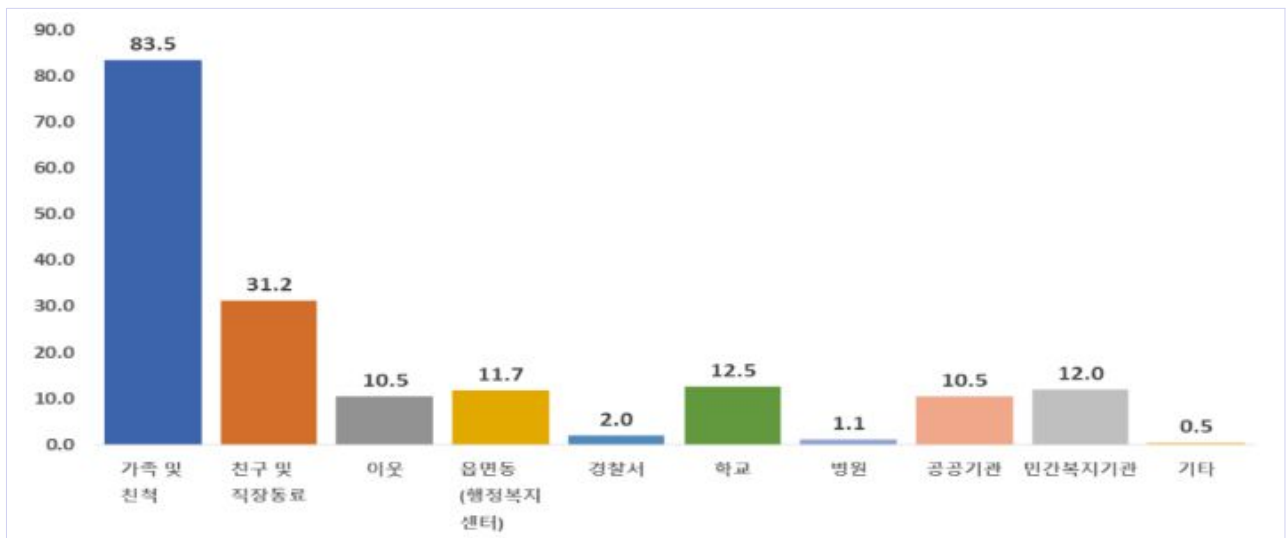
○ **(아동 돌봄)** 아동돌봄에 대해 대상자의 17.5%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30대(25.0%), 수도권(20.9%), 전세(30.0%)에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정부의 적절한 대응정도)** 정부의 아동돌봄 사회보장정책 및 사업 등이 적절하게 대응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44.4%), 보통(40.9%), 부적절(14.6%)로 응답

- **(도움 가능처)** 가족 및 친척(83.5%)이 월등히 높고, 친구·직장동료(31.2%)가 그 다음으로 높음

* (도움여부)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74.1%)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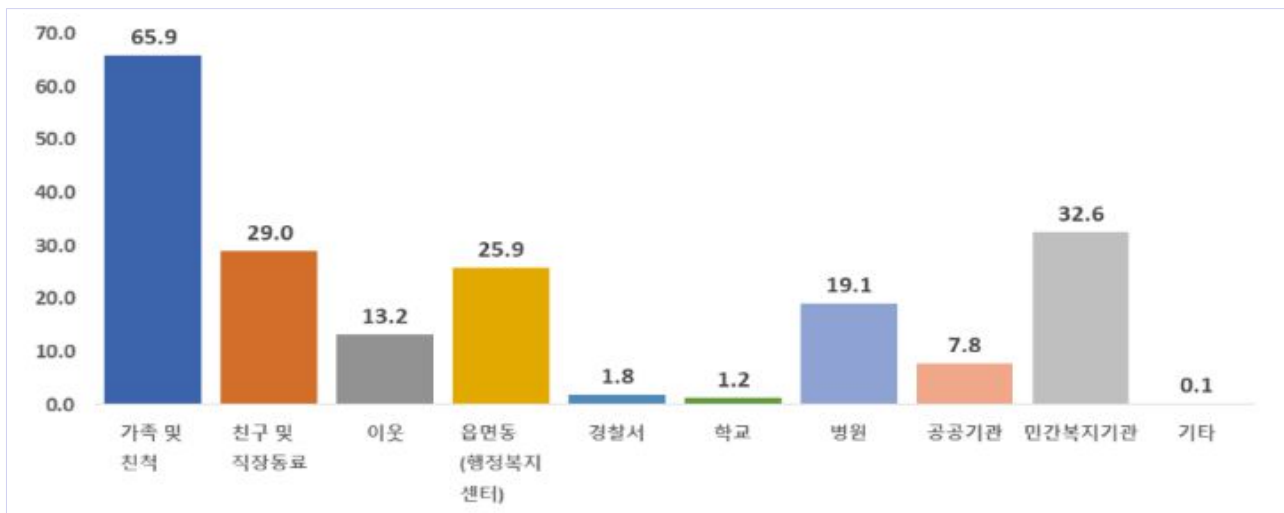


○ **(노인 돌봄)** 노인돌봄에 대해 대상자의 12.6%가 어려움이 있고, 20.2%가 도움을 필요로 함

* 수도권(17.6%), 월세(27.3%)에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정부의 적절한 대응정도)** 정부의 노인돌봄 사회보장정책 및 사업 등이 적절하게 대응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54.7%)**, **보통(38.4%)**, **부적절(6.9%)**로 응답
- **(도움 가능처)** 가족 및 친척(65.9%)이 가장 높고, 민간복지기관(32.6%), 친구·직장동료(29.0%), 읍면동(25.9%) 순으로 응답

* (도움여부)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71.1%)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주택마련)** 주택마련에 대해 대상자의 **10.9%**가 어려움이 있고, **12.4%**가 도움을 필요로 함

- 30대에서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 1인 가구(15.4%)가 다른 집단에 비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코로나19

① 긴급재난지원금

- **(필요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52.4%(우리 사회 전반), 53.1%(가구 경제상황)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의 필요성 정도가 부유층에 비해 낮고,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하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 (사회전반) 필요하다는 인식은 실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며(빈곤층 48.8%, 부유층 53.4%),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하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상층 42.5%, 하층 58.1%)
 - * (가구경제상황) 필요하다는 인식은 실제 소득수준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일수록 높게 나타남(상층 39.1%, 하층 58.8/%)
- **(지급방식)**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38.6%),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28.8%),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18.9%), '피해 여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13.7%)로 나타남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과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②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스트레스 증가'(52.6%)이며, 다음으로는 '소득 감소'(39.9%), '(취업, 사업 등)생업의 어려움 증가'(39.7%)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 감소'는 소득계층별로는 중하층(43.8%)과 빈곤층(42.0%)에서, 생활상태별로는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58.3%)와 실업자(52.3%)에서 가장 두드러짐
 - '생업의 어려움 증가'는 소득계층별로는 중하층(43.3%)과 중상층(41.0%)에서, 생활상태별로는 실업자(51.1%)와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47.9%)에서 가장 두드러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비 지출 증가	0.6	11.1	47.9	39.2	1.2
소득 감소	0.8	10.8	48.6	34.8	5.1
생업의 어려움 증가	1.7	12.4	46.1	34.6	5.1
나와 가족의 건강 문제 발생	2.9	15.0	47.1	32.3	2.8
가족 돌봄 부담 증가	3.8	16.6	48.1	28.5	2.9
스트레스 증가	1.3	10.1	36.0	47.8	4.8
주변사람들과 갈등 증가	2.7	15.1	53.8	26.9	1.5
교육에 대한 걱정 증가	7.1	14.8	50.9	24.9	2.3